

세계의 길

세계의 길

VOL.27



KTTU 클로즈업
우리가족孝사랑 휴가 1차 시행

현장24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 소통하다

KTTU 카툰
단체 · 실손보험, 의료비 지원 제도

KTTU 레이더
KT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선도한다

인내는 결실로, 결실은 풍요로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아닌 전기요금 폭탄에 집집마다 시름도 늘었습니다.

가을비 한번에 내복이 한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 거짓말처럼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들에는 풍성한 과실이 무르익었습니다.
올해도 과일과 곡식은 풍년입니다.

극심한 시련은 때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기의 정체로 무더위가 지속된 대신
태풍은 빗겨가고 병충해도 없어 수확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항상 비극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시련은 더욱 풍성한 결실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결국 뜻깊은 결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제의 땀방울이 오늘의 결실이 되어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C o n t e n t s

vol. 27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 활짝 K뱅크 출범
공감코칭	12	청소 노동자 정정필씨의 하루
이슈 & 사회	14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장24시	16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 소통하다.
KTTU 카툰	20	단체 · 실손보험, 의료비 지원 제도
KTTU 레이더	22	KT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선도한다
KTTU 클로즈업	24	우리가족 孝心랑 휴가 1차 시행
KTTU 리서치	28	KT사격선수단 국가대표 진중오
길따라 멋따라	30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 가족 힐링 여행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2016 단체교섭 상건례 및 본회의 열려



임금인상 6.3%, 성과보로금 지급 등 4개 분야 9대 요구안 일괄 상정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18일(화) 오후 2시 KT본사 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단체교섭 상건례 및 1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의 4개 분야 9대 요구안을 일괄 상정했다.

노동조합은 본교섭 상건례에 이어 조합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 고과 인상분을 제외한 임금 6.3% 인상, 연말 GiGA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보로금 지급, 연금저축 지원 등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섭에 앞서 먼저 올 한 해에도 사상 유례없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KT를 선순환 계도에 올리기 위해 애 쓰신 황창규 CEO와 경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운을 떼었다. 정 위원장은 계속해서 “KT에 1등 DNA의 확고한 신념을 일깨우고, 글로벌기업의 경쟁력을 현실화하는데 성공한 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도 그만큼 크다”고 설명한 뒤 “노사가 서로 발전적인 전망 속에서 이해와 절충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과 조합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교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한결 같은 관심과 열정으로 KT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노동조합과 임직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KT만의 역량과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쓰자”고 화답했다.



노동조합의 임금 6.3% 인상을 포함한 9대 요구안은 현장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8월 12일(금)부터 19일

(금)까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전체 조합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2016년도 단체교섭 방향 등 각종 자료 등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여론을 담은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토대로 10월 10일(월) 전국 12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제8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6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



까지 2016년 단체교섭 전담반을 운영하고 전담반에 참여한 교섭위원들은 4박 5일간의 특별교육을 통해 2016년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교섭위원들은 ▲이전 단체교섭 영상자료 분석 ▲현장 조합원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노동계 동향분석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 등으로 진행하고, 주요 요구안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의교섭을 통해 실전에 대비했다.

2016년 단체교섭 요구(안)

임금분야	1. 임금 6.3% 인상 - 고과 인상분 제외 2. 성과보로금 지급 - 1인당 200만원 또는 ESOP 65주
복지분야	1. 연금저축 지원 - 2017년 1월부터 10년, 매월 10만원 지원 2. 업무용 단말기 지원 정례화
제도개선	1. 인사제도 개선 - 직군 통합(C직과 S직군 ->G직군 전환) 2. 복지포인트 개선 - 차등지급 폐지, 50만원 상향 인상 3. 출장비 현실화 - 숙박비 및 일비 상향
복지기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 500억 원 출연 2. 대부제도 개선 - 대부이자율 1% 인하, 대부금액 확대 및 상환 만료자 추가 수혜 기회 부여

※ 2016년 단체교섭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직 체육행사 참여 시 CS성과 보상

KT노동조합은 2016년 3/4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로 C직 조합원 체육행사 참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CS성과 보상을 시행했다.

- 시행목적 및 제안배경
 - 체육행사 참여로 개통/AS 미수행으로 인한 CS성과 하락방지
 - 개인적 사유가 아닌 체육행사 참여로 인한 점
- 처리방법
 - 체육행사 참여일을 교육출장/공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CS성과 보상
 - 체육행사 참여 여부는 지사/지점 복무 담당자를 통해 별도 수합
 - 복무처리는 일괄 처리하므로 개별 (공가처리)신청 불필요
- 시행일 : 2016년 하반기 체육행사부터 즉시 시행

2016년 하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



재직 중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개발 및 경력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창업지원 휴직을 시행한다.

- 지원자격 :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대상분야 : 제한없음(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
- 휴직기간 : 1년 6개월 ~ 3년 6개월
 - 의무휴직기간: 1년 6개월 (6개월 단위 연장가능)
- 선발절차
 - 신청 : 희망자가 신청서류(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ERP 시스템 등록
 - 심의위원회 심의 : 1차심(소속기관), 2차심(인재경영실)
 - 심의기준
- 1차심: 사업계획서의 사업성, 준비도, 적정성 및 창업가 정신 등 평가
- 2차심: 1차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적합/부적합 검증(결격사유)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10.04(화) ~ 10.11(화)
 - 1차 심의 : 10.12(수) ~ 10.14(금), 소속기관
 - 2차 심의 : 10.17(월) ~ 10.18(화), 인재경영실
 - 최종선정 : 10.18(화)
 - 사전워크숍 : 10.20(목)
 - 협약체결 : 10.26(수) ~ 10.28(금), 소속기관
 - 휴직발령 : 2016년 11월 1일자

2016년 제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법정사유로 긴급자금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시행한다.

- 신청대상
 - 퇴직연금제(DB형) 가입 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 (계약직 제외)
 - 연대보증 복지기금 대부자는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시 신청 가능
- ※ 퇴직연금 가입유형 확인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관리
- 신청유형
 -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법정인출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참고사항
 - 신청가능 금융기관 및 접수처와 준비서류는 아래 [문서/정책] 자료실 참고
 - DC형 및 혼합형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1월, 7월)
 - 법정중도인출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4월, 10월)

현장작업 IT폰 대개체 시기 안내 및 액세서리 지급 추진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4분기 중앙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후속 조치로 외부작업과 차량이동이 많은 개통/AS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 현장작업 IT폰 대·개체 시 블루투스 헤드셋 등 액세서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 액세서리 지급품목(5종) :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 보조 배터리, 케이스, 액정보호필름, 목걸이
- 대·개체 시기 : 갤럭시 노트7 단말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
노동조합은 개통/AS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안전과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매년 IT폰 대·개체 시 액세서리 지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전국 지방본부 지원국장 워크숍 개최



KT노동조합은 9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대구지방본부에서 전국12개 지방본부 지원국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번 워크숍에는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 지원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2016년 단체교섭을 준비하며 조합간부 역할과 준비사항 점검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현재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개선된 상조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홍정성 복지국장과 박병규 다온플랜사업본부장의 교육도 진행됐다. 특히, 한호섭 사업지원실장은 전국 지원국장들에게 “올해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장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단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수지부 6곳 격려방문

“현장목소리 경청하자” 조합활동 활성화 위해 선정



KT노동조합은 2016년 9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우수지부 6곳을 선정하여 격려·방문하고 인증패와 격려금을 수여했다.

이날 최장복 조직실장은 해당 지부를 찾아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각 지부장을 상대로 “참여와 단결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지부 인증은 노동조합 조직강화사업 중 하나로 현장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수지부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조합활동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우수지부는 다음과 같다.

■ 우수지부 / (지부장)

- 강북지방본부 광진지부 (박중국)
- 본사지방본부 현장기술지원단지부 (정주형)
- 강남지방본부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황윤구)
- 대구지방본부 동대구지부 (추교권)
- 충북지방본부 옥천지부 (신한식)
- 충남지방본부 천안지부 (신선섭)

2016년 추계 체육행사 시행

2016년 추계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했다.

■ 행사기간 : 10월 4일(화) ~ 10월 31일(월)

- 근무시간 외(야간) 및 휴(무)일 시행 금지

■ 행사대상 : 전체 임직원 및 계약직 포함

■ 예산기준 : 1인당 5만원(체육행사비)

- 불참 인원예 대한 예산집행 금지(단, 근무로 인한 불참은 예외 인정)
- 상품권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구매 금지

■ 행사내용

-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프로그램 선정으로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 건강한 일터 구현을 위한 임직원 건강증진 활동 및 협동정신 함양
- 권장사항(예시)

- ① 문화체험 활동 : 연극, 콘서트, 미술관, 전시회 등
- ② 건강증진 활동 :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체험활동 등
- ③ 사회공헌 활동 : 복지시설 자원봉사, 환경·문화재 보호 등

■ 유의사항

- 관리자 주도 행사 탈피, 조합원 중심 추진으로 진정한 소통기회 마련
- 사전 준비운동 철저 시행, 과격한 운동 지양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과도한 음주, 행사 장시간 진행으로 인한 조합원 피로 유발 금지
- 행사 중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노사상생협의회 열려...노사랑 봉사활동 확대 및 화상영어 교육효과 극대화 등 추진



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9일(금) 분당 사옥 회의실에서 노사상생협의회 회의를 열고 ▲초등자녀 화상영어교육 효과 극대화 등 안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사는 먼저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교육 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부 프로그램 진행 등은 추후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자녀 화상영어교육 효과 극대화는 단순 화상영어 서비스제공이 아닌 KT가족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후 Care 필요와 적극적 교육참여 자녀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노사는 이어 KT노동조합의 대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회사가치창출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 간의 주요실적은 ○서울시 교육청 스쿨넷 사업수주 지원 ○대규모 주택 단지 대상 유선상품 판매 등이며, 향후 각 지역 주요기관 대상 특관 및 마케팅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UCC 공식 홈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직접 링크로 회원사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하여 UCC 가입신청, 오작교 참여신청 등 사무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금번 회의의 네 번째 안건은 ▲UN SDGB(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최우수인증 도전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 선도기업으로서 국제적 인증을 확보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회입법과 법안개정에 적극반영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또한 ▲노사랑 봉사활동 가족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노사랑 활동 참여범위를 직원 가족까지 확대하여 KT 가족으로서의 애사심을 고취하고 노사공동 사회적 책임 실천강화를 통한 국민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추진배경이다. 우리가족 노사랑 봉사활동 일정은 9월 말 계획수립 후 10월 중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회계연도 2016 상반기 회계감사 총평

KT노동조합은 8월 26일(금)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중앙 회계감사에 대한 총평 및 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2016년 상반기 지출 증빙 일체에 대한 이번 회계감사는 지난 8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진행했다.



중앙회계감사위원회 김상찬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먼저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정운모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의 협조에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수감기간 동안 지출결의서와 예금통장, 각종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을 대상으로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표처리 등 제반 행정처리가 짜임새 있고 투명하게 정리돼 있었고 전년도 환수대상도 전액 처리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 대표위원은 계속해서 “향후에도 현행대로 조합비를 체계적이고 철저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운모 위원장은 “중앙에서 지방본부 살림살이까지 꾸려가다 보니 예년에 비해 줄어든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으나 조합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더욱 알뜰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권고사항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정비해서 소중한 조합비를 더욱 투명하고 검소하게 쓰겠다”

고 약속한 뒤 “노동조합이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2016년 산하조직대표자 회의 열려...단체교섭 일정 및 현장 조직활동 강화 논의



KT노동조합은 8월 22일(월)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12개 지방본부 위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2016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과 함께 승리하는 교섭을 견지하기 위한 현장 조직활동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8월 초부터 한달 가까이 전국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과 가슴을 연 대화를 통해 많은 생각에 잠겼다”고 피력한 뒤 “생동감 있는 조합활동 구현을 위해서라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단체교섭에 거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만족하는 2016년 단체교섭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8월 9일 ~ 12일까지 모은 현장의견과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안전 선정 작업을 충분히 검토한 후 2016년 단체교섭 일정을 수립했다.

현장 개통/AS 업무분야 이동용 캐리어 지급안내

KT노동조합은 개통/AS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단말, 자재, 공구 등을 담을 수 있는 이동용 운반구(캐리어)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 지급대상 : 개통/AS 업무 분야

■ 지급일정 : 2016년 8월 말 ~

이는 노동조합이 양손에 단말, 자재 등을 들고 고객을 방문하는 현장 조합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존경받는1등KT분과 회의에서 회사 측에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올 연말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 활짝 K뱅크 출범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될 K뱅크는 ICT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K뱅크가 새롭게 제공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K뱅크 준비법인이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K뱅크의 인가 절차를 빠르게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 올해 안으로 K뱅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K뱅크의 직접적인 심사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K뱅크가 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원, 물적 설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심사를 내린 것으로 보여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K뱅크의 등기법인명은 (주)케이뱅크은행으로 정해졌다. 설립자본금은 2500억 원으로 KT를 중심으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포스코ICT, 알리페이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전무가 초대 대표로 선임됐으며, 현재 150여 명의 인력이 가동 중이며 올 연말까지 5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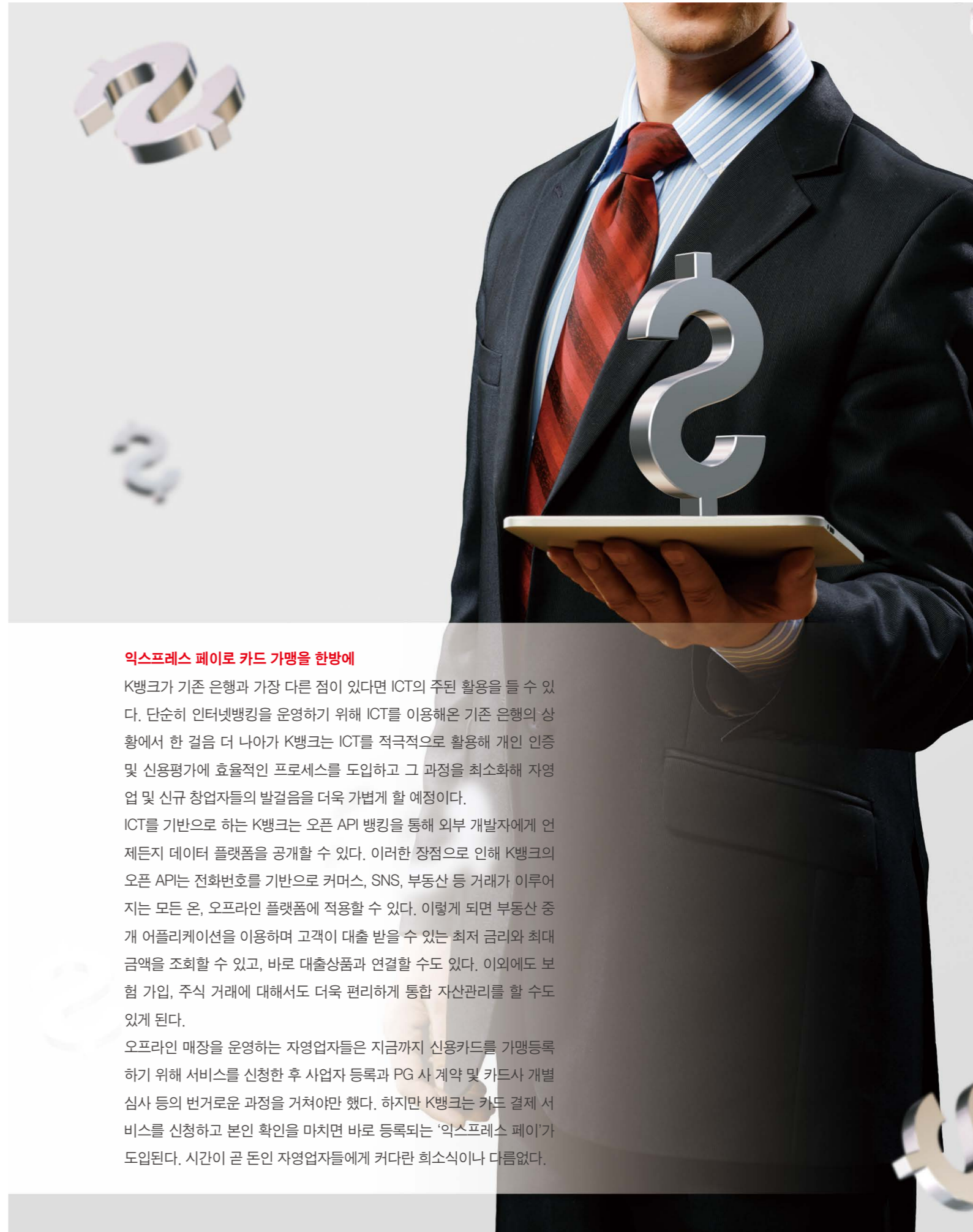
K뱅크가 출범하면 KT 대리점과 GS25 편의점 등 기존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은행권이 해내지 못하는 2040 모바일 세대를 타겟으로 한 중금리 대출 및 자영업 자금 지원 등이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

지금까지 시중의 거의 모든 은행에선 신용거래가 부족한 고객들의 정확한 신용평가가 불가능했다. 은행권에선 “현재 1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3년 동안 신용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K뱅크가 설립되면 신용거래 이력만으로 신용조사를 측정해야 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K뱅크 주주사가 보유한 압도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K뱅크는 국내 과세대상 개인 사업자의 70%에 해당하는 가맹점포와 국내 GDP 대비 17% 민간소비 지출규모의 35%에 해당하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들의 이러한 빅데이터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과 더불어 개인 자금의 이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서 중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상권과 개인의 상환능력을 분석해 자영업들에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을 개시함과 동시에 사회 초년생을 위한 간편심사 소액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금융위기를 넘기고 신용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스프레스 페이로 카드 가맹을 한방에

K뱅크가 기존 은행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ICT의 주된 활용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뱅킹을 운영하기 위해 ICT를 이용해온 기존 은행의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뱅크는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 인증 및 신용평가에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그 과정을 최소화해 자영업 및 신규 창업자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할 예정이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K뱅크는 오픈 API 뱅킹을 통해 외부 개발자에게 언제든지 데이터 플랫폼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K뱅크의 오픈 API는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커머스, SNS, 부동산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온, 오프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고객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와 최대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바로 대출상품과 연결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더욱 편리하게 통합 자산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가맹등록하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과 PG 사 계약 및 카드사 개별 심사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K뱅크는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 확인을 마치면 바로 등록되는 ‘익스프레스 페이’가 도입된다. 시간이 곧 돈인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희소식이거나 다름없다.

모바일세대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자의 36.3%가 모바일 뱅킹을 활용했다고 한다. 30대는 55% 이상이, 20~40대까지는 평균 47% 정도 모바일 뱅킹을 활용한다고 하니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사용 고객군도 2040모바일 세대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이체/결제 수단으로 ICT가 활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캐시플로우를 분석해 어드바이저 로보가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조언을 직접 제공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중국 시장에 투자했다면 중국 시장에 이슈가 발생해 개인 자산에 영향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고위험/저위험 자산의 리밸런싱을 통한 투자 비율을 수정하고 알람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세대를 위한 능동적 자산관리 또한 가능하다. 개인의 신용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고 금융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계획 등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한 생활자금 관리를 병행하기도 한다. 큰 금액을 예치한 고객에게 제공되던 PB 서비스가 ICT를 적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K뱅크 vs 카카오 뱅크, 무엇이 다른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 비교

K뱅크		카카오뱅크
2500억 원	자본금	3000억 원
kt(8%),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GS리테일(10%) 등 21개 사	주주	한국투자금융(54%), 카카오(10%), KB국민(10%), 그 외 eBay, 넷마블, Yes24, 서울보증보험 등
약 8조5천억 원	금융감독원이 예상하는 3년 후 자본 규모	약 6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 GS리테일 등 주요 참여 회사의 빅데이터 적극 활용 통신사 대리점과 편의점, 공중전화 CD를 고객창구로 활용해 24시간, 365일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전국 1만여 곳의 GS25편의점과 7천여 곳에 달하는 우리은행 ATM을 고객창구로 활용 온, 오프라인 가리지 않음으로써 시중 은행보다 뛰어난 경쟁력 확보 	서비스 차별화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 모바일과 및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메신저 위주의 서비스로 편의성 제공
중금리 신용대출 및 간편심사 소액대출, 원터치 모기 지론 등	제공 서비스	중금리 대출 및 소액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K뱅크가 출범함에 따라 카카오뱅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영역에서 K뱅크와 함께 시장을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K뱅크와 함께 전산과 인력,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양 사는 모두 온라인 중심 서비스라는 점이 같지만 K뱅크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24시간 은행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메신저 중심의 금융 플랫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K뱅크는 오프라인을 통한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 플랫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주주사인 GS리테일의 GS25와 KT의 공중전화 그리고 우리은행의 CD기 등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한다. 전국 1만여 곳에 달하는 GS25 편의점과 7000여 개에 달하는 우리은행 ATM 등까지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시중은행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뱅크는 근무시간 외 혹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손쉽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온라인/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주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하듯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카카오뱅크는 또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과 금융 상품 가입·해지, 자산 관리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뱅크는 다양한 대출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초기에는 중금리 신용대출과 간편 심사 소액대출 위주의 대출 영업을 전개한 후, 원터치 모기지론까지 취급할 예정이다. 무점포 운영을 통해 비용을 줄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대출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역시 사업 초기 중금리 대출과 함께 소액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셀러론(Seller loan)이다. G마켓과 옥션을 통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화시킨 상품으로 상환 방식도 대출자의 매출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서비스는 서로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주주사의 DB를 통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선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역을 개척할 두 회사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청소 노동자 정정필씨의 하루

KFnS 정정필 조합원

'반갑다'는 인사, '수고 많다'는 격려가 가장 큰 힘이다

아직 가로등 불빛이 켜있을 새벽 거리, 정정필씨가 집을 나선다. 몇 시간 후 출근할 막내 아들을 위해 따끈한 아침밥을 지어놓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난 뒤다. 사람들이 출근 하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미화원은 새벽 6시 즈음 일을 시작, 부리나케 움직여야 한다. 분당 사옥 사무실을 누비며 직장인들이 맞이할 상쾌할 아침을 위해 전날 오후 내내 채워져 있던 쓰레기통을 비우며 화장실을 청소하고 부족한 비품을 채우고 나면 얼추 오전 일이 끝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십 오륙 년 전에는 휴지를 줍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하루 수 백 번씩 하는 허리 굽혔다 펴기가 그렇게 고역이 아닐 수 없더니 이제는 제법 이력이 쌓여 속도가 붙었다. 사실 정정필씨는 만 67세로 분당 KT 사옥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다. 손발 써서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 약값이 더 든다며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세상에서 적어도 내가 흘린 땀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16년 차가 됐다.

“여기선 내가 제일 베테랑이야. 남들은 청소 일이라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세상 모든 일에는 경력과 노하우라는 게 중요한 법이어서 이젠 눈 감고도 착착착 자동이야. 그래도 컵라면 국물이나 아이스크림 녹은 게 범벅이 된 휴지통은 여전히 곤욕스러워.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고 쓰레기통도 물로 다시 다 닦아야 하거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클린 KT 우리가 책임집니다”

무한생존경쟁 속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사회의 온기가 유지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4천여명의 인원이 들고 나는 분당 KT사옥.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미화원의 일과는 항상 남들 보다 이르게 시작된다. KfnS 소속 조합원이자 미화원으로 KT사옥을 책임진지 어느덧 16년. 동트기 전 새벽공기를 맞으며 하루를 여는 정정필씨의 일상은 아직 대다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 오전 5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클린 KT, 확인하고 버리세요!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한데 모아 배출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상자류 | 비닐코팅,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사무실 휴지통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 보다 더 섭섭한 것은 여전히 척박한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다. '청소 제대로 하신 거냐?'며 뜬금없이 타박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건물에서 밥벌이 하는 것도 인연이라고 꾸벅 인사를 건네면 대답도 없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래도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게 삭막하기만 하겠는가. 16년 간 지치고 힘든 노동에도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것 역시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 말 한마디다. 말없이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며 씩스럽게 미소를 내보이는 사람들, '식사는 하셨느냐'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들. 그저 내 할일 할 뿐인데 고맙다 말해주고 살갑게 아는 체 해주는, 작지만 배려의 그 마음들이 참 감사하다. 세상이 아무리 '갑질한다, 각박하다' 해도 공동체를 굴러가게 하는 추동이자 더 없는 힘인 셈이다.

“가끔 심사가 꼬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가 열에 하나라면 마음 곱고 예쁜 사람은 열에 아홉이야. 격려, 응원 한 마디에 큰 위안도 얻게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우리 미화원들이 있어서 KT건물이 깨끗해진다는 자부심도 있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다시 내일을 시작할 힘을 얻는다는 정정필씨. 아직은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는 날까지 보람차게 일을 하고 싶다고. “몸이 허락되는 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 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더 빨리 늙어서 안돼”

따지고 보면 '을'이 아닌 이가 얼마나 있을까. 세상이 우러르는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스스로 인정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해도 이 거대한 자본주의 틀에서 이만한 일상이라도 건사하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는 모두 을이다. '내가 관할하는 구역의 사람들이 경우가 바르고 좋을수록 담당하는 장소에 빠진 것은 없는지, 미진한 곳은 없는지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 보고 살피게 되더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은 정정필씨의 말대로,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일수록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우리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KT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서비스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터다.



ISSUE & SOCIETY

핵심 요약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



그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직자를 비롯해 공무원과 언론인 등 김영란법에 저촉 받는 해당 직군 사이에선 깊은 한숨과 함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김영란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김영란법이 뭐길래?

김영란법이 사회적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제창하면서부터다. 사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청탁금지법'으로 부른다. 일반명사일 때는 그저 평범한 법안으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고유명사로 통하는 '김영란법'의 위력은 그 이름만큼이나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법적 구속력을 띠게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만약 공직자가 법을 어기고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는 모두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로 한정된다. 언론 종사자는 현행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다수의 언론인들이 포함된다. 교직원들은 모든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사설 유치원 및 사립 대학교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립교육기관 및 사학재단 이사진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얼마까지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수행, 사고,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 원 미만의 식사 대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선물은 5만 원 미만, 경조사비는 축의금과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부서장은 동일 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로 해당되어 김영란법에 저촉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3만 원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상한액(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대상	상한액	
음식물	전제 적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강연료	공무원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이상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공직유관기관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1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단,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미만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받게 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알 수 있는 구매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단, 구매가와 시가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기준(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위반행위	처벌	
부정 청탁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 청탁한 이해 당사자	없음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한 이해 당사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한	일반인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정 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품 수수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받은 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과다 강연료를 받은 공직자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적화된 길로 고객을 안내하는 KT의 얼굴, C&R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 소통하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업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고객만족이 기업 생존의 화두가 된 요즘 고객의 다양한 불만을 처리하고 지원활동을 담당해야 하는 C&R팀 역시 그러하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을 상대로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C&R팀 조합원들로부터 그 속내를 들어 보았다.

“고객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 고비마다 최선 다해요.”

인천 남구와 남동구, 연수구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지부 C&R (Care&Retention)팀의 업무 강도를 듣다보면 양선희 조합원의 입에서도 힘든 기억이 줄줄 열거될 만한데, 태도는 들뜬일 없이 평온하다.

“어차피 주어진 업무이고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니까요.” 양조합원은 KT플라자에 몸담고 있던 2009년까지, 일일이 주판을 튕겨 매일 2,300여 고객들의 현금출납 장부를 정리하며 영업에 임했었다. 그때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의 업무는 훨씬 수월한데다 한발 더 나아가 '감사하다'고 까지 말하는 그다.

현재 C&R팀은 전국 51개 지부 내 총 581개 팀이 있다. 약정기간 종료나 종료 전 고객들에 대한 재약정 활동 즉 사전케어활동과, 100번 고객센터에서 이관되는 해지VOC 방어 및 일반 불만처리, 사내 캠페인활동을 통한 기기인터넷 전환과 유무선 상품판매 활동 등을 담당한다.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은 물론 유·무선 상품 외 기본적인 선로 상식, 시설 및 장비, 개통 A/S 등 전반적인 지식을 숙지해야 하는 그야말로 토탈 케어부서다.

플라자가 필요에 의해 고객이 찾아오는 곳이라면 C&R팀은 민원이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처리업무나 기술, 노하우는 자연 쌓여간다. 고객과의 통화는 녹취되고 VOC해결은 단시간에 처리되기도 하지만 몇 달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도 있어서 업무는 늘 짝 조여진 상태. 게다가 주된 업무가 VOC처리이다 보니 고객들의 거친 불만 민원으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는 그저 일상이다.

“저도 사람인지라 고객이 거칠게 나오면 순간 ‘욱’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강하게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화난 고객은 ‘녹취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시켜주고 많이 들어줘야 해요. 최대한 요구사

항을 수궁하면서 달래는 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

“고객들은 이곳 업무를 몰라요. 오로지 자신의 문제가 처리되는지가 관건인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며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피지기의 마음이 최선의 스킬

양조합원은 '내 업무는 최선을 다해 스스로 해결하자'는 게 평소 지론이다. 때문에 높은 사람을 바꾸라며 거친 언사를 하는 고객을 피하고자 쉽사리 팀장에게 수화기를 넘기지도 않는다. 자신도 어딘가에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거칠게 덤벼드는 고객을 상대할 때마다 최대한 여유를 가진다.

“젊은 고객들일수록 말을 막 합니다. 세계 나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녹취되고 있다’고 얘기해도 뜬금없이 ‘너랑 통화 못하니 뒷사람 바꾸라’며 막무가내예요. 그럴 때는 ‘뒷사람도 해결 못하니 저하고 해결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고객도 대부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수궁하죠.”

잠깐 지나갈 천재지변이나 이웃과의 당치도 않은 비교로 혜택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고객들도 있지만, 양조합원은 이

제 딱 듣는 순간 고객의 현재 마음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매달 고지서가 나가는 20일부터 열흘은 가장 바쁜 때다. 요금조정에 관한 전화가 빗발친다.

모든 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객의 ‘갑질’이 업무의 전부는 아니다. 소수의 언성 높이는 고객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기간마다 C&R팀을 위한 사내 힐링캠프에서 해소하거나, 주말 산행 그리고 매주 수요일 지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와 수다로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팀워크가 중요한 일인 만큼 10명 팀 동료들의 고객 응대 스킬은 최고라고 자부한다.

“품질 건이 해결될 때는 제일 기뻐요. 고객들은 물론 당연히 생각하지만요. 대부분의 고객은 혜택을 조금만 줘도 수궁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안되니까 C&R로 오는 건데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안 된다고 시작하기보다는 금전으로 보상 할 수는 없으니 쿠폰이나 작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도 ‘품질 전반에 대한 견해일 뿐 당신한테 화났던 건 아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럴 땐 보람을 느끼죠.”

단지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기기인터넷으로 속도를 전환해 전산 처리가 좀 더 빨라졌으면 한다는 거다. 알고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양선희 조합원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단 업무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닌 듯싶었다. “힘들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쉽게 받아들이면 수월합니다!”



서부지방본부 인천지부 C&R팀
양선희 조합원



Yang
Seonhui

Choi Pillyeol

“찾아가는 서비스로 KT 평생고객이 되게 해야죠.”



전주,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까지. 전북 동부권을 관할하는 전주지부 C&R팀은 총 16명. 최필렬 조합원은 1995년 입사해 전북 전화건설국과 본부 홍보팀과 사업지원부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주지부 C&R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곳 역시 사전케어와 캠페인 시스템을 통한 신규활동이 C&R의 주 미션이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콜센터에서 이관되는 불만 VOC처리에 집중돼 있다.

특히 전주지부는 북전주, 전주,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등 8개 플라자와 공조한다. C&R팀에서 플라자 채널을 직접 관리하는 리베로로서, 플라자 해지방어 뿐 아니라 고객 유지 및 신규창출을 위한 공격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것인데 전주지부 C&R팀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플라자에서 해지 방어 도움요청 시 혜택을 제공하거나, 유선 상품판매 지원활동을 하는 등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거죠.” 그가 느끼기에 고객과 직접 상대하지 않던 과거 부서활동과 달리 현재의 C&R 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가 세다.

“팀원들에 비해 C&R 업무 경력은 미천하지만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던 건이 있습니다. 몇 해 교도소 생활을 했다는 고객이 교도소 생활 중 전화 미사용 건에 대해 요금을 환급해 달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KT는 다 도둑놈’이라며 욕설



을 해대는 바람에 곤욕스러웠죠. 또 어떤 분은 품질불만으로 해지요청하면서 ‘위약금 미 부과 조건에 해당이 안 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KT가 잘못해서 해지하는 건데 왜 내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냐’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해 참 난감하고 골치 아픈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고객들을 보면 같이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꼭 참고 얘기 나누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해 매뉴얼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으로 응대한다지만, 사실 딱히 효율적인 해지방어의 비법이 나 대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묻는 것마저 주변인으로서 미안할 정도다.

“스트레스 해소래야 특별한 것이 없어요. 솔직히 진상 고객들과 통화가 끝나면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라며 털기도 하고, 옆 동료에게 하소연하며 분을 삭이기도 하죠. 업무시간 오후 경에 동료들과 간식시간을 가지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기도 합니다. 가끔 주말에 막걸리 한 병 사서 혼자 등산을 가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걸 몸과 마음에 쌓아두면 언젠가는 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북지방본부 전주지부 C&R팀 최필렬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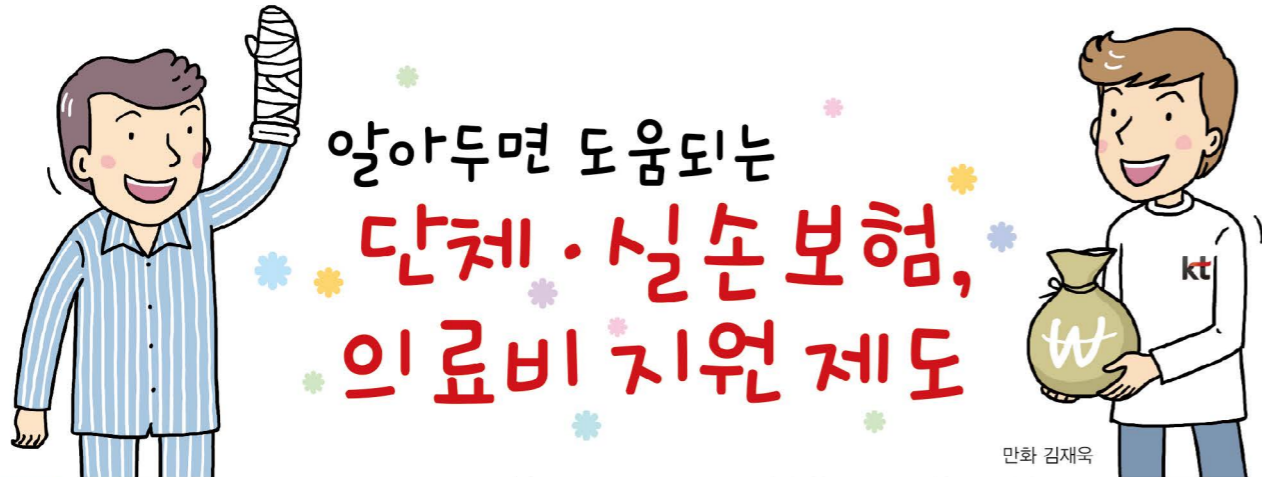
원활한 업무 위해 프로세스 개선됐으면

요즘 고객들은 영리하다. 특히 젊을수록 말이 거칠고, 해지 후 통신사를 갈아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시쳇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약이 오르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고객의 욕구는 커지는데, 스스로가 최 말단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여기는 C&R팀은 축소된 혜택과 통제된 제도 내에서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충격을 클 수밖에 없다고. 품질불만으로 인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하기 위한 지침상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고객들은 ‘당신 같으면 연결 안 되는데 계속 쓰고 싶나. 여러 번 AS를 받아 봐도 매번 같은 사람이 와서 서비스하고 받고나면 똑 같다.’고 받아친다. 그는 이런 경우 베테랑 전담조직이 갖추어져 종합적인 진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끔 프로세스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깝게는 장시간 앉아서 모니터를 응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보다 큰 모니터가 추가 지원된다면 노안으로 인해 피로한 조합원들의 불편이 한층 해소될 거 같다.

다른 부서에는 없는, 오로지 케어부서인 C&R팀이기에 고객에게 해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보람도 분명 존재한다. 떠나려고 했던 고객에게 결합으로 요금이 절감되는 방법을 알려주면 고맙다고 주변인들을 연결해주고 간혹 소소한 답례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한 고객들이 바로 KT의 평생고객이 되는 것이기에 잘 잡아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은 C&R 업무 최선의 전략이라고 최필렬 조합원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간혹 악성민원이 있다 해도 고객에게 사정하기보다는 배 풀고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 그게 C&R팀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지.”



만화 김재욱



가입된 두 종류의 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단체보험

- ▶ 본인과 배우자의 사망, 재해장애, 암에 대해 보험금 지급
- ▶ 본인 재해사망, 배우자 재해/일반사망시 1억원 보험금 지급
 - 단, 본인 일반사망은 복지기금에서 1억원 지급
 - 단, 본인의 교통사고 사망은 5,000만원 추가 지급
- ▶ 본인과 배우자의 재해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 본인과 배우자의 암진단에 대하여 최대 1,500만원 지급
 - 단, 암진단 보험금은 보험사 심사결과에 따라 1,500만원 중 100%(악성암), 30%(경계성암), 10%(상피내암)의 보험금 지급

※ 연도 중간 입사한 신입사원은 본인에 한하여 자동가입
 ※ 전이된 암은 지급 불가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네.

실손보험

- ▶ 본인의 입원에 대한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
- ▶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 중 택일
 - 매해 연말 익년에 대한 실손보험 유형 선택
- ▶ 개인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보상이 불가하므로 입원일당 선택이 유리함
- ▶ 입원의료비 선택시 급여성 90%, 비급여성 80% 지원
- ▶ 입원일당 선택시 하루 당 4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급

※ 연말 실손보험 선택할 때 본인 부담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 가능
 단, 부모는 만 80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비

- ▶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대하여 지급
-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자녀 의료비에 대해 급여성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분을 지원 단, 자녀는 만26세 이하까지(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지원
- ▶ 비급여성 항목 중 MRI/CT/초음파진단료는 30% 지원
- ▶ 의료비는 연간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 의료비 신청위치는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의료비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 의료비 지원~.

일반적으로 본인 입원의료비는 반드시 보험사로 청구(회사 의료비지원 제외)해야 합니다. 그 외 직원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나 자녀의 입원의료비는 연말 본인비용 부담으로 입원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 의료비지원 & 입원실손보험 양쪽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 시에는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꼭 사내 ERP 시스템에서 입원병가를 신청해야만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아요(입원병가는 최소 입원일수 없음).

깜빡했다. 빨리 노트북 좀~!!

어머, 절대 안정 필요~!!

단체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실손보험은 연말에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안 하면 '입원의료비'로 자동 가입돼요.

회사지원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군.

보험금은 청구서류를 동시기획으로 접수(TEL: 02-755-1004, FAX: 0502-755-1004), 보험금 청구방법은 ERP▶HR▶복지후생▶제도안내▶단체보험을 참조하세요.

보험금은 회사에 접수할 필요 없어요

ERP에 입력

암진단 시 의료비 청구 기준과 사례를 알아두세요.

1. 암진단의 종류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명확한 지급 여부가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병원 진단서 질병코드가 C(일반적 악성암) 또는 D(상피내암/경계성암)으로 진단될 경우 지급될 수 있음. 지급액 규모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100%(악성암), 30%(경계성암), 10%(상피내암)로 구분.

2. 보험금 청구기한

보험금 청구기한은 2015년 9월부터 관련법령이 변경됨. 암진단을 포함한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기한은 2016년 이전 발생한 사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2016년 이후 발생한 사유는 3년 이내 청구가 가능.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할 때 잘 챙깁시다!

전기차 이용으로 月 연료비 10만원 절감

KT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선도한다



전기차 수요의 급증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전기차 시스템과 인프라가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첨단 IoT 기술을 바탕으로 KT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주차장에 마련된 우체통만한 작은 상자에 플러그를 연결하고 서너 시간 정도 기다려 배터리를 충전한다. 전기차의 충전 모습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전국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6년 상반기 현재 5767대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차의 이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유지비다. 환경부에서 정한 전기차 급속 충전 비용은 1kwh당 313.1원으로 평균연비 6.3km/kwh인 아이오닉EV(1회 충전시 191km 주행)의 경우 휘발유 1L 가격(1,500원 기준)으로 3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매일 4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소요되는 충전비용은 5만9천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전기차 구매자의 Home에 구축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경우는 훨씬 더 저렴(1kwh당 약100원)하며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금폭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효율성으로 무장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역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충전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데다 각 학교, 병원, 기업,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도 충전인프라 보급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교통카드처럼 손쉽게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

뿐만 아니라, 이들 충전인프라 중 이동형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에서는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트렁크에서 길이 5m에 무게 3kg인 이동형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꽂고 충전기에 교통카드를 대듯이 RFID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첨단 IoT 기술을 바탕으로 KT가 추진하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모델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은 IoT를 활용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를 위해 전문 벤처기업인 ㈜파워큐브와 협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부문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1만5천여 개소의 이동형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대를 선도해 가고 있다.

누진제, 추가 과금 없는 저렴한 이용료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공동주택과 상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원활한 충전 장비 운영을 위해 입주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기존 공영식 충전설비와 달리 이동형 충전인프라는 올해 12월

부터는 입주자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할 예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6.12월)으로 공동주택 등의 충전인프라 구축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공동주택 등에서 이동형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공용 전기 콘센트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할 경우 한 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이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공동주택 입장에서 공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사용자는 누진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김미나 팀장(SEV사업팀)은 "이동형 충전인프라는 기존 콘센트를 변형하거나 별다른 설치물 필요 없이 RFID로 차량 주인만 인식되면 전기 요금은 아파트 관리비와 상관없이 별도 청구된다"며 이동형 충전인프라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KT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과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롯데렌탈 자회사인 그린카와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사 MOU'를 체결하고 서울과 제주의 EV충전인프라 구축에 협력 중이며, 서비스 확장을 위한 통신/결제단말 구축 및 위탁운영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는 아울러 가입자 기반의 충전 서비스 및 다양한 융복합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ICT와 통신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편리한 충전 서비스 개발해 전기차 이용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향후에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에너지 신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KT 들어간 자식 덕에 대접받고 왔다’며 자랑하셨죠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1차 시행



충남지방본부 대전유선운용센터지부
서대전운영팀 강용석 조합원

지난 9월 30일 친정어머니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중국 장가계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강용석 조합원은 당시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자랑스레 펼쳐보였다. 난생 처음 가는 어머니와의 해외여행에서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고 수려한 풍광과 맛있는 음식은 가족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했다는데, KT노사가 가족사랑 실천을 취지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우리가족 효사랑’ 프로그램에 무한애정을 표하는 강조합원으로부터 즐거웠던 뒷얘기를 들어보았다.

동료 추천 후 추첨을 통해 5차까지 휴가자 선발

유선엑세스부문을 담당하는 강용석 조합원은 97년에 입사해 이 분야에서만 20년 차인 베테랑이자 팀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인재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장과 맞물릴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이 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껴온 시간만큼 가족 특히 친정어머니와의 거리는 마음과 달리 소원해지고, 때마침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프로그램에 팀장의 추천으로 이름을 올리며 호도를 만회할 기회다 싶었지만 사실 선발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깜짝 놀랐어요. 지부장님이 선정됐다고 전화 왔을 때도 장난인 줄 알았죠.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되고나니 신랑, 시댁 등 누구와 가야하나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효사랑 취지에 맞고 마침 엄마가 칠순이라 기념도 할 겸 아이들도 함께 추억을 만들자 생각했어요. 남편도 흔쾌히 친정엄마와 가라고 권유했구요.”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는 기관별 동료의 추천 후 기관선정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휴가자를 선발했다. 조합원을 포함한 가족 두 명의 여행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부모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동행을 원할 경우 직계가족에 한해 두 명까지 본인부담으로 동반할 수 있다.

9월26일 1차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되는 휴가에는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태국 방콕, 중국 장가계와 북경 그리고 제주도 등 총 6곳 중 희망지와 시기를 선택한다.

강조합원은 그 중 이번 1차시기를 선택해 3박5일간 장가계를 다녀왔다.



“1차에는 총 71가족 162명이 참가했어요. 장가계는 호관광의 대표명소라 해서 선택했는데 실제 가보니 걷는 시간도 하루 한 시간 정도라 어르신들도 힘들어하지 않고 좋아하셨어요. 초4, 중1인 딸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던 풍경이라며 좋아했구요. 장가계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라던데 운 좋게도 내내 맑았죠.”

무인발권 출국부터 KT의 밤 행사까지 세심한 배려

강조합원은 이번 휴가에서 출발부터 귀국까지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다고 했다.

“출발 당일 아침에는 마련해 준 버스를 타고 온가족이 인천공항까지 갔어요. 뿌듯했죠. 버스가 좋았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인솔자들까지 동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만 보낸 분들은 불안했을 텐데 어르신들도 무척 편안해들 하셨어요.”

번잡한 출국심사 걱정도 없었다. 휴가자들이 항공사 카운터에 대기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권기 키오스크(KIOSK)로 빠른 출국심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한 가족 당 한 명씩 로밍서비스도 지원됐다. 또 상황실을 운영해 귀국 때까지 휴가자들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온 사람, 시어머니와 함께 온 사람 등 참가한 가족들의 부류도 참 다양했다고. 그들을 위해 제공된 현지 최상급 호텔과 고급 음식, 더불어 과일바구니 선물은 특히 부부동반 가족들이 무척 좋아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KT의 밤’행사였다.

“행사의 일환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써오라고 하더군요. 막상 쓰려니 잘 안돼서 결국 세 시간에 걸쳐 썼어요. 엄마한테 20년 만에 쓴 편지였어요.”

일과 결혼으로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낸 편지는 그날 밤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에 울렸다.

“읽는 데 손이 떨리고 감정이 폭발했어요. 부모님께는 죄인인 듯 감사한 자식의 마음을 담았는데 엄마 표정은 정작 잘 못 들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여조합원이 와서 딸의 입장에서 공감했다고, 참 많이 울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했던 현지 음식도 잘 드시고, 애들처럼 좋아하시며 아픈 데 하나 없이 엄마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강조합원은 무척 만족스럽다. 어머니는 ‘힘들게 대학 공부시켜서 KT에 들어가더니 덕분에 잘 대접받고 왔다’며 자식이 다니는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대접해줬다는 데 대해 감사해하고 뿌듯해하셨다고.

강용석조합원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혜택을 다른 조합원들도 고루 나누어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더불어 효사랑 휴가처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보다 확대되고 장기화 됐으면 한다.

“일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동료 추천이라 생각보다 당첨확률이 높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조합원들을 추천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뽑는 취지도 좋고요. 이번에도 현장 운영팀에서 일하는 이들에게까지 고루 혜택이 간 거라 만족해요. 보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세심한 배려 돋보였던 여행



“효사랑 휴가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하계휴가 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께 효도하라는 의미로 팀원들이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다낭에 다녀왔는데 출발부터 도착까지 운영진들이 친절하게 보살펴 줘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한 여행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여행용 트래블킷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줘 저녁 숙소에서는 킷 안의 마스크팩을 어머니께 해드리기도 했죠. 한가지, 부모 중 한 분만 계시거나 여행이 불가하신 분이 계실 때 그 형제자매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봅니다.



아들과 단둘이 가는 첫 여행을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지만 마음 맞는 분들끼리라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족 효사랑’은 만족도 높고 조합원 사기도 높이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케팅전략본부 무선사업담당 본사지부 이원태 조합원 • 베트남 다낭

취지와 잘 부합된 참 좋은 프로그램

“늘 바쁜 일상에 쫓겨만 다니다 운 좋게도 이번에 중국여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 앞에서 소녀처럼 기뻐하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저처럼 아내와 둘이 온 참가자 외에도 장인 장모를 모시고 온 사위 가족, 군대를 막 제대한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 등 참 다양한 가족들이 참가해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즐거워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가족사랑 실천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딱 부합되듯 인상적이었고, 참 좋은 행사구나’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원도 확대되어 더 많은 조합원들이 꾸준히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고객본부 원주지부 태백 박철준 조합원 • 북경 · 만리장성



30여 년 회사생활 중 잊지 못할 뜻깊은 행사



“KT에 입사한 지 벌써 31년차로 비즈전문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족 효사랑’ 프로그램에 당첨돼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니 그리고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부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해무가 끼는 날씨 속에서도 아내와의 이번 제주도 여행은 참 특별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즐거웠지만 특히 국궁 체험과 감귤 따기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사랑 여행은 제 30여년 회사 생활에서 잊지 못할 아주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부산고객본부 진주지부 영업부 최동규 조합원 • 제주도

KT, 대표이사 회장님 께
KT, 노동위원장님
우리 가족 효 사랑의 관광을 위하여 다양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노이를 거쳐 하롱베이의 명승지와 자연으로 둘러싸인 바구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광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모인 초년의 자리였지만 3박5일의 일정동안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삶에 쪼르르한 모습들이 활짝 피어나고 부부 정간에는 사랑이, 모자 정간에는 효도가, 동기간에는 애정이, 고부간에는 이해와 배려를, 사돈간에는 허심탄회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 화기애애한 화목한 자리였습니다. 숙식도 VIP의 대우를 받으며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이드분의 끊임없는 베트남의 역사와 발전 상황을 들려주는 설명과 마음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 가득히 담아서 돌아와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친절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끝까지 베풀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헤어지는 순간에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바리돌건에 KT가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 성장하여 세계에서 1등가는 기업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6년10월 2일 김 영 희 드림.

▲ 디바이스본부 무선단말담당 김인화 조합원의 부모님이 보낸 손편지



감동적인 ‘KT의 밤’ 잊지 못해



“이번 휴가는 제가 힘들어할 때 늘 옆에서 용기와 사랑을 주신 여든 넘는 장인어른과 함께 한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장인어른께서는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왔다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 하셨습니다. 태국 여행의 모든 일정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둘째 날 ‘KT의 밤’은 모두 함께 즐기며 역시 우리는 KT인이라는 하나 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번 여행으로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족 효사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고객본부 용인지부 CS부 이승호 조합원 • 태국 방콕 · 파타야



금메달을 만든 건 끝까지 놓지 않은 '희망'

KT사격선수단 국가대표 진종오



사격, 하키, 프로야구, 프로농구, e-스포츠 등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하며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해 온 KT스포츠단이 창립된 게 1984년. 인기 종목에 치중하지 않고 스포츠의 고른 운영정책을 펼쳐온 KT스포츠단 최고의 결실은 뭐니 해도 '진종오'라는 이름이다. 1985년 비인기종목이던 사격의 선수단을 창단, 역대 한국 사격 스타들을 배출한 명문 KT사격단의 중심에서 진종오는 사격 역사상 최초 3연속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를 만난 건 97회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이던 청주 종합사격장에서였다. 전무후무한 자신의 족적은 KT스포츠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던 이 세계최고의 권총 사수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2004년 KT에 입단해서 지금까지 KT소속인 15년차 국가대표 사격선수 진종오입니다."

리우올림픽 결승 9번째 발에서 6.6점을 썼음에도 끝내 위업을 달성했다 6.6점을 썼을 때 '3연패고 뭐고 다 끝났구나' 했다. 언론이나 네티즌 댓글에 시달릴 걸 생각하니 이걸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고, 아테네 올림픽 때 7번째 발에서 6점 쓰고 4년간 욕 진짜 많이 먹었다. 다행히 이후 한발이 기사화생이 돼 한 단계씩 올라갔다.

정말 짜릿했다 그 종목이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며 차분히 잡아나간 게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만들었다. 보통 3위권 안에 들면 안정권이라 여겨 안심하고 편하게 쏜다. 베트남과 북한선수도 '메달을 뺏다'라는 편한 마음 때문에 실수 하지 않았나 싶다. 저는 3등을 해도 놓기가 싫었다. 웬지.

그렇게 부담이었나 저 같은 고참 선수는 매 대회를 마지막대회라고 생각한다. 올림픽은 4년 주기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실수를 하니까 답이 안 나왔다. 올림픽 메달이 운이라는 게 진짜...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못 쓸 거라곤 생각 못했다

리우 출전 전에 도쿄올림픽까지 업무 해 둔건가 솔직히 도쿄 그 다음 올림픽이 은퇴라고 생각하고 싶다. 은퇴시기를 묻는 건 '언제 죽을거냐'는 질문과 같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다. 끝까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10년 넘게 KT스포츠단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점이라면 KT의 지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것이다. 세심하게 신경써준다. 가장 큰 강점은 다른 팀에서 시도하지 않은 걸 해준다는 거다. 국제대회 때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는 것부터 엄청난 배려다. 다른 곳은 거의 상위 1%에게만 제공한다. 좋지만 한편 부담도 된다. 사격용품은 물론 그 어떤 팀보다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나 선수들은 훈련조건 잘 갖춰주고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격하게 보상해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KT사격단이 85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그건 회사와 소통이 잘된다는 얘기다. 상금이 조금 올라가면 더 좋긴 하겠다. 하하



안녕하세요 KT 가족 여러분
2004년 부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격에 입문한 건 언제부터인가 어릴 때부터 총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세뱃돈을 모은 저금통을 몰래 털어서 장난감 총을 샀는데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다. 다니는 중학교에는 사격부가 없어서 어머니 지인 분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사격 체험을 했다. 소총은 오발이 났지만 권총은 표적 안에 들어갔다. 중학교는 사격부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집중력은 어떻게 기르나 기계의 도움도 받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 사격을 잘하고 싶어서 필요로 시작한 독서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재미난 소설 그리고, 심리 관련서적은 너무 많이 읽어서 박사들과 얘기가 통할 정도다. 하하. 리우 갈 때도 아이패드엔 전자책을 담아갔다. 시간 없어 못 읽는다는 건 핑계다.

책 하나 추천해 달라 직장인이 짬 내서 볼 수 있는 책으로 파울로 코엘료의 <마르틴>을 권한다. 짧은 에피소드를 묶은 거라 어디서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저는 3일만에 다 봤다. 와 닿는 문구들이 많다. 마음을 비우게 해준다.

일상은 어떻게 보내는지 틈틈이 책 읽으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총은 휴가 때는 쳐다 도 안 본다. 낚시, 사진, 자전거, 그리고 스쿠버도 즐긴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 대화하고. 사격장을 벗어나면 저희는 정말 사회초년생이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넓다는 것, 가난한 이도 부자도 많다는 것... 참 많은 걸 배우게 된다.

메달 하나만 더 따면 한국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된다. 도쿄 올림픽에서의 각오는 일단 선발전이 양궁만큼 힘들다.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해야 할 것 같다. 선발전만 통과하면 올림픽 메달은 자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많은 용기가 되므로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올림픽 4연패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디라도 좋은 계절, 함께라면 더 좋다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 가족 힐링 여행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다.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산들바람에 저절로 마음이 들뜨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픈 계절이다. 자연을 벗삼아 한정 없이 걷기만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온가족이 함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자. 안식년 휴가를 맞아 조합에서 제안하는 국내 여행 시리즈 그 세 번째 주제,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 여행이다.



도심 속 신선 유람, 선유도공원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걷기에 좋은 계절이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도 자연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주는 낭만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선유도공원은 작은 노력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선유도공원은 2000년 선유도 정수장이 폐쇄된 이후, 정수장 시설물을 재활용해 녹색 기둥의 정원, 시간의 정원, 물을 주제로 한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한 국내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이다.

선유도로 들어가려면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와 선유도를 잇는 한강 최초의 보행자 전용 다리 선유교를 건너야한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모양의 다리에 오르면 한강의 풍광부터 북한산 줄기와 월드컵경기장,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선유교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해질 무렵에 도착하는 것도 좋다. 밤이 되면 다리에 조명이 켜지고 다리 아치 주변이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

선유도공원은 웨딩 촬영, 스냅사진 촬영, 사생 대회, 소풍 등의 단골장소로 알려질 만큼 아름다운 경치와 특색있는 조형물로 유명하다. 수생식물원과 시간의정원이 있는 선유도 중심부는 다양한 식물과 조형물이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과 활짝 핀 연꽃으로,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 계절별로 풍부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이면 바삭 마른 연꽃잎과 연밥이 색다른 풍광을 선사한다. 한편 테마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온실을 운영해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싱그러운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선유정수장 당시 농축조 시설을 개조해 만든 원형소극장에서는 계절마다 클래식, 락,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도 열린다.



조선 팔경, 정읍 내장산



내장산은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혔다. 내장산성, 금선폭포, 용수폭포, 신선문, 기름바위 등도 잘 알려져 있다. 등산로는 능선 일주 코스와 백양사까지의 도보 코스가 유명하다.

올해 단풍은 9월 29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하루에 20~25km 씩 남하해 10월 21일이면 내장산에도 단풍이 시작된다. 내장산은 단풍나무,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다양한 단풍나무와 천연기념물인 굴거리나무 등 무려 50여 종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조화를 이뤄 더욱 아름답다. 국립공원 내장산은 내장사가 있는 전북 지역의 내장산지구와 백양사가 있는 전남 지역의 백양산지구로 나뉜다. 매년 단풍철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탐방객들이 내장사에서 내장산을 넘어 백양사로 가거나, 반대로 백양사에서 내장사로 넘어오며 단풍을 구경한다. 내장사의 오른쪽 서래봉과 맞은편의 주봉인 신선봉 사이에는 높이 20m, 둘레 4m에 수령 700년으로 추정되는 단풍나무 군락지가 있다. 내장사로 들어가는 계곡 입구의 양쪽 산기슭부터 내장사 매표소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는 구간의 단풍도 일품이다. 특히 매표소에서 다리를 건너 대웅전까지 약 3.2km에 이르는 산책로의 애기단풍과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네군도단풍 등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보여주는 단풍터널은 마치 꽃대궐을 거니는 것처럼 화려하다. 잎이 마치 아기 모락손처럼 작고 단풍이 진한 핏빛으로 물드는 '애기단풍' 숲길을 걸으면 충만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강물 위를 수놓는 빛의 향연, 진주

진주는 예부터 '북평양 남진주'로 일컬어질 만큼 산과 물이 좋고 맛과 멋이 풍요롭기로 유명했다. 1925년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진주는 경남의 행정과 문화·경제의 중심지였다. 진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남강을 따라 비봉, 망경, 선학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은 남한 제일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진주에는 빼어난 볼거리와 자랑거리가 많다.

진주대첩의 격전지인 진주성. 임진왜란 테마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도 진주성 안에 있다. 축석루는 임진왜란 때 지휘소로 사용되던 누각이다. 역시 진주성 안에 있는 축석루는 반대편 강 건너에서 볼 때 더 아름답다. 축석루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가 의암이다. 논개가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으로 투신했다고 알려진 바위다. 논개를 기리는 의암사적비가 바로 뒤쪽에 서 있다. 매년 10월이면 진주의 볼거리는 더욱 화려해진다. 남강을 테마로 개천예술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남강과 진주성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 중에 개천예술제(10월 3일~10월 10일)도 함께 열린다. 진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남강에 유등을 띄워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에 전몰한 7만여 명의 순국영령을 위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진주 시내의 거리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바뀐다. 특히 남강변은 물과 불, 빛이 어우러져 눈부신 황홀경을 선사한다.



명품 치유의 숲, 가평 잣향기푸른숲



잣향기푸른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숲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이다. 축령산과 서리산의 해발 450~600m 사이에 수령 80년 이상, 5만여 그루의 울창한 잣나무 숲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힐링센터, 자연명상 공간, 데크로드, 숲속의 호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린이부터 가족,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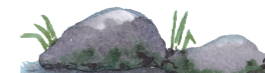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 치유사와 함께 치유숲길을 걸으며 숲속명상, 기체조, 트리 허그, 풍욕 등을 통해 산림 치유를 진행하는 코스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숲의 활기를 불어넣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또 잣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심신안정은 물론 심폐기능 강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잣향기푸른숲은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 중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숲으로 조사 되기도 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보내는 하루는 그 자체로 힐링의 시간이다. 힐링센터를 시작으로 명상 공간에서 숲 속 명상을 하고 기체조도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물가두기 사방댐까지 오른 뒤 풍욕장과 물치유장을 거쳐 되돌아 내려오는 코스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잣나무 숲 속에 마련된 탐방로를 숲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자유롭게 숲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미는 물론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축령백림관에서 시작해 잣향기목공방, 출렁다리, 화전민마을, 힐링센터, 기체조장, 풍욕장과 숲길을 거쳐 물가두기 사방댐에 오른 뒤 순환 임도로 내려오는 코스다. 사방댐에서 절고개를 거쳐 축령산이나 서리산까지 등산도 가능하다.



단양팔경보다 더 아름다운, 단양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 상류에 도담삼봉, 석문이 고고한 위용을 뽐내고 충주호에는 구담봉, 옥순봉이 선상관광의 백미를 선사한다. 선암계곡의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과 운선구곡에 있는 사인암까지, 단양하면 역시 단양팔경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단양에는 단양팔경 말고도 아름다운 명소들이 가득하다. 특히 소백산 국립공원은 한반도 중심에 우뚝 솟아 백두대간의 장대함과 신비로움을 엿볼 수 있는 명산이다. 소백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해 여러 봉우리를 따라 걷는 중주 코스는 많은 등산객이 사랑하는 트레킹 코스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라면 다리안관광지, 천동관광지, 온달관광지 등 유원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자연을 만끽하는 캠핑, 드라마촬영지에서의 추억 만들기 등 특별한 재미도 가득하다.

최근에는 숲 체험 열풍과 함께 단양 느림보 강물길이 가을 힐링 트레킹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느림보 강물길은 남한강변을 따라 석문길, 삼봉길 등 4개 테마로 조성한 총 연장 8.1km의 친환경 숲 체험 길이다. 특히 도담삼봉과 석문을 비롯해 금굴 등 수많은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트레킹의 재미를 더한다. 대부분의 코스가 그리 높지 않은 산허리나 강변도로를 따라 조성돼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숲길을 따라 늘어선 측백나무 군락은 향기만으로도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정확시킨다. 고수재길은 도담리 전망정자까지 0.8km 코스로 출렁다리, 포토존, 향기오름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가족단위 트레킹족에게 특히 인기다. 느림보 강물길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걷다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이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 삼아 숲속의 향기와 조용한 시골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